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기관·단체 **관변단체/사회단체**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마포구민 20여 년 고통
의 대가 의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

김도연 기자

승인 2016.09.20 19:33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신임 김영식 이사장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이 마포구민의 뚝이라고 강조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신임 김영식 이사장이 서울시 환수 움직임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해 마포구의 몫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20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파악에 한창인 신임 김영식 이사장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은 20여 년 가까이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 받아 온 마포구민의 고통의 대가이며, 지금



김영식 이사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발전적인 조언에 귀기울일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마포구민의 편익을 위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식 이사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역의 역할은 마포구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에 있다”며 “친절과 안전을 기본으로 모든 직원들이 수탁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교육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한 외부의 조언에 귀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주변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는 사례를 접했다”며 “공단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누구의 말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나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구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thanknews@naver.com

<저작권자 © 마포땡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